



학교안전교육체험장비



불잡이되살림이 물품식별번호 24029504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수의계약 근거 혁신 제품 기관평가 반영 구매면책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인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한 후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을 의미

핵산제품이은 공공사비스 항상과 기술핵산을 위하여 공공 성, 핵산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조달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정된제품

기관평가 반영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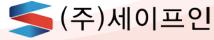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 자목

구매면챈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정부화신명가, 지방자단체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경영병가, 자방공공기관경영병가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세부 시항은 기관별 평가 계획참조







제품사양

구	성	55"터치모니터, i5 CPU Mini Computer, KIOSK, 시뮬레이션 소화기 (2개), 시뮬레이션 심폐소생술애니 (2개), 멀티탭 6구,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HDMI Cable, 무선 키보드 터치패드 마우스, 소화기 및 CPR 체험 SW
종	류	방재훈련용 모의시스템 (조달청 혁신장터)
용	도	소화기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훈련
크	기	1270 x 1520 x 380mm (WxHxD)
훈련시간		10분
훈련인원		1~2인
전	원	220V

화면구성

소화기사용 화재진압(장소별 화재상황 연출)









실제와 동일한 훈련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안전핀 제거 및 노즐 잡는 방법을 숙지하고 화면에 나타난 상황 별 화재를 주어진 시간 안에 진압하는 모의훈련 (성공/실패 결과표시)

심폐소생술 체험









훈련용 마네킹에 압박을 가하면 연동된 화면 속 아바타에 압박의 정확도가 표시되고 생명바가 상승하여, 일정 시간 안에 생명바를 채워 아바타를 소생시키는 모의훈련 (성공/실패 결과표시)

안전상식 퀴즈/생존수영



영상을 보고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맞춰보는 퀴즈 형식의 안전교육

- · 전기감전사고
- · 버스하차사고
- · 커튼 줄 목 감김 사고
- · 세탁기 질식사고
- · 차량 질식사고
- · 베란다 추락사고
- · 놀이터 기생충 감염사고
- · 캠핑 질식사고
- · 맨 홀 추락사고
- · 어린이 유괴사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용감하게 화재 진압한 하동초교생들 화제

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재 현장 신고부터 진화까지 맡아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하동소방서에 따르면 정예헌 군 등 하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8명은 지난 9일 낮 하동 문화예술회관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후 2시 44분께 회관 부지 내 배수구에 서 시뻘건 불이 나는 것을 목격하고 주변에 있던 어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 다. 이어 회관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 1대를 이용해 용감하게 초기 진화에 나섰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오후 2시 48분께는 이미 불길이 모두 잡힌 상태였다. 화재 장소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용감한 대처 덕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소화기로 직접 진화에 나선 정군은 **"평소 학교에서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예방 교육을** 받은 덕분"이라며 "당황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담배꽁초가 배수구 안 낙엽 등에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동소방서 관계자는 "학생들이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부터 진화까지 훌륭히 대처해줬다. 불이 확대되는 걸 막고 싶었다는 학생 말에 감동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하동초등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재난대응 예방훈련을 통해 전교생에게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가르쳐준 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꾸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9.2.14 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학교서 심폐소생술 배운 12세 딸, 아빠 살렸다

잠자던 아빠 돌연 호흡 멎자 학교에서 배운대로 흉부 압박… 5일만에 건강하게 퇴원

"정신 차려요. 서현 아빠!"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7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임모(여·40)씨는 남편 방모(40)씨의 숨 넘어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호흡을 멈추고 의식을 잃은 것. 임씨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볼과 가슴을 내리치자, 옆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 딸 서현(12·잠현초)양이 재빨리 엄마를 제지했다. "때리지 말고, 두 손을 깍지 껴서 가슴을 눌러야 해!"

서현이는 119와 연결된 전화기를 엄마에게 넘겨주고 정확한 동작으로 아버지의 가슴팍을 누르기 시작했다. "흉부 압박을 멈추지 마라"는 서울 강동소방서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서현 이는 어머니와 교대로 6분 동안 아버지의 가슴을 압박했다. "하나, 둘, 셋…." 방씨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병은 '부루가다 증후군'.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심실세동과 호흡 이상으로 돌연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방씨를 진찰한 의료진은 "부루가다 증후군이 발병한 사람 중 3분의 2는 즉사하고, 가까스로 살아난 3분의 1중 75%는 뇌손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서현이의 응급 처치 덕분에 방씨는 지난 5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서현이는 작년 4월 학교에 교육을 나온 송파소방서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한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초동 조치를 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유치원 때부터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일반인의 77%가 심폐소생술 초동 조치를 하는 스웨덴이나 미국(41%)·노르웨이(40.3%)·일본(31%)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다.



학생안전체험시설

학교(유치원 포함) 교육과정에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로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험인프라**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2 및「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등 ※ 안전체험시설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김성찬, '17.2월)

추진목적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다양한 체험위주 안전교육 ·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안전의식 및 유사시 위기대처능력 함양**







체험위주의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불잡이 되살림이 (CPRFEK V1.0)

가격 11.000.000원 (VAT포함)

설치 사례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김해동광초등학교 양평어린이집 대전둔산초등학교 양서어린이집 안동영명학교 서울양전초등학교 인천강화초등학교 서울대도초등학교 울산문수초등학교 부산와석초등학교 용인신원초등학교 거제옥포초등학교 파주와석초등학교

단국대사범대부속중학교 단국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 단국대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부산영도여자고등학교 부산마케팅고등학교 광주서진여자고등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금정소방서 경기도소방본부 서울적십자 외 전국적십자 14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천공항공사 안전체험관 한국과학창의재단

